광산구, 촘촘한 마을복지 구현한다

‘우리동네 마을복지관’ 100곳 구축
지역 특성 반영 복지 불균형 해소

광산구 마을복지관으로 선정된 경로당에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 광산구가 구민과 가까운 곳에서 촘촘한 마을 복지를 구현하고, 공동체 상생 문화를 조성할 ‘우리 동네 마을복지관’ 100곳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민선 8기 복지 분야 핵심 공약으로 시민과 더 가까이, 더 촘촘한 마을복지 실현을 위해 마을복지관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는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오는 2025년이면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노인세대의 고립감, 우울감, 피로감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마을복지관은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면서 복잡 다양해진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광산구만의 복지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점 단위 거점 시설이다. 총 100개 마을복지관 운영을 목표로 설정한 광산구는 주민 접근성과 이용 환경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빠르게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벌써 98곳이나 되는 마을복지관이 지정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21개 동마다 3~5곳이 마을복지관 간판을 내걸었는데, 수완동에 가장 많은 8곳이 지정됐다.

마을복지관은 앞으로 주민 간 연대와 소통 활성화, 마을공동체 복원 및 확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광산구는 20여 개 기관 및 광산구 부서와 마을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업 체계를 운영한다.

더불어樂노인복지관, 행복나루노인복지관, 첨단종합사회복지관,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 등은 거점협력기관으로 권역별 주민의 욕구 조사 및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행복복지파트너 양성 및 배치,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달부터 노래, 건강체조, 요가, 스마트폰 교육, 글쓰기, 원예 교실 등 기존 44개 프로그램에 산림치유, 문화재 체험도 추가됐다.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산구자원봉사센터, 광산구 교육도서관과, 지속성장일자리과 등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 단체는 마을활동가 지원, 취약계층 안부살핌과 더불어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광산시민수당을 통한 ‘행복복지파트너’, 빛고을50+ ‘운영지원 이 음파트너’ 양성 등 사회 활동 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가진 광산구는 100개 마을복지관 운영이 지역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 욕구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로이자 창구가 되기 때문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마을복지관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을 보살피며 마을공동체에 활기를 더하는 광산구만의 새로운 복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100개의 마을복지관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청년과 함께 ‘더 나은 복지환경’ 조성

투게더광산-동강대 청춘월담 협약
복지현장 경험, 시책 발굴 등 추진

광주 광산구가 청년과 함께 지역의 복지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새로운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동강대학교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지난 12일 현장 중심의 더 나은 복지환경을 조성해 지역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청춘월담(越談)’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청춘월담’은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대학과 청년이 협력해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3개 기관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들에게 현장 경험,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동강대는 지역 돌봄에 관심 있는 ‘청춘월담 지기단’을 모집·운영해 복지 현장 참여를 통한 복지 시책 발굴에 나선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복지 현장 체험과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광산구는 청춘월담 지기단에게 ‘지역 주도형 돌봄 서비스’에 직접 참여해 행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청춘월담’은 지역의 청년이 학교 담을 넘어 행정 현장을 경험하며 남다른 시선과 아이디어로 복지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청년의 경험이 지역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실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1000명 돌파

누적 기부금 1억, 10만원 기부자 가장 많아 “지역발전 활용”

지난 4월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기부금 1억 원을 도달한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총 기부자 1000명을 달성했다.

광산구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 각지에서 활발한 참여가 이어지며 순항 중이다. 지역별로 광주를 주소지로 둔 기부자가 전체의 65%에 달했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14%, 전남권이 11%, 기타 지역 10%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 12일 탄생한 광산구 고향사랑기부제 1000번째 기부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시민이다. 광산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기 답례품과 편지를 전할 예정이다.

금액별로는 10만 원 기부자들이 전체의 86%로,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1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오토캠핑장 숙박권, 승마체험권, 텃밭 분양권 등 서비스 품목부터 농축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특색 있는 총 47개 품목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기부자 중 64%가 답례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새로운 동력을 모으는 고향사랑기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

누적 기부금 1억 원, 기부 참여자 1000명을 돌파한 광산구는 더 많은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답례품 만족도 및 고향사랑기금 사업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에 사랑의 마음을 보내주신 많은 기부자께 감사를 드린다”며 “소중한 기금이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될 수 있는 활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10만 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매월 1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또 2000명, 3000명 등 매 1000명째 기부자에게 5만 원 상당 답례품. 2억 원, 3억 원 등 매 1억 원 단위에 도달한 기부자에겐 10만 원 상당의 인기 답례품을 증정하는 감사 이벤트를 지속한다.

고향사랑기부제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주민자치과(062-960-8108)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구강건강관리 캠페인’…구강관리 교육·홍보물 배부

광주 광산구는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지난 9일 광주송정역에서 ‘구강건강관리 캠페인’을 펼쳤다. 구강보건의 날은 매년 6월 9일로 영구치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됐다. 6과 9는 각각 어린이의 첫 영구치가 나오는 6세와 영구치(구치)의 구를 의미한다. 〈사진〉

광산구는 이날 광주시민은 물론 광주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구강건강인식 개선을 위한 퀴즈 , 치아모형을 이용한 구강관리 교육, 리플릿·홍보물품 배부 등을 진행했다. 광산구는 15일까지를 구강보건의 날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주민 대상 진료·교육프로그램 운영한다.

광산구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구강건강생활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산구 24시간 무인민원기 확대, 업무 외 시간 이용률 21%

광주 광산구는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을 확대한 이후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업무 시간 외 시민 이용이 활발해지는 등 이용률과 시민 접근성 향상 효과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광산구는 올해 5개 동에서만 운영하던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총 14개 동으로 확대했다. 지난 5월 기준 14개 동 무인민원발급기의 업무 외 시간 이용률은 21%로 조사됐다.

이 중 점심시간 및 퇴근 이후 시간이 84.2%로 매우 큰 비중(전체 24시간 기준으로는 15%)을 차지했다. 심야 시간(0~5시) 이용 사례도 확인됐다.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확대로 시민의 민원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추가로 24시간 개방한 9개 동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도 1~5월 평균 17.4%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장소를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광산군 관계자는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다양한 생활 패턴을 가진 시민이 언제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